

“정보보호 비용, 생존위한 핵심투자… 대표가 보안 관리해야”

금감원, 여전사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
빠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사이버 침해사고와 가계부채 부담에 직면한 여전업계에 금융감독원이 ‘정보 보호 강화’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계기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금감원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취약자 지원과 모험자본 확대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14개 여전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여전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한구 중소기업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카드사·캐피탈사 CEO들이 자리했다.



이찬진(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은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원칙

을 갖고, 대표이사가 직접 보안 인프라를 점검하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빠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해킹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야간·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카드 사용 중지나 재발급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가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운영 등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시호 연장 자체, 고령층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통해 소외계층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이 과도하게 위축되

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여전사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등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신기술금융업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허용,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업권의 투자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보고·신고 의무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사 CEO들은 취약자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제시장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부동산 PF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업무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23~25일 중 공포·시행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시행되며, 세부 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도 함께 개정·고시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1 거래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일반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30억원) ▲사업계획의 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가격 일치 시 자동 체결, 기업 재무정보·기초 자산 운용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공매도 금지, 임의적 계시글 삭제 금지 등도 포함됐다. 기존 샌드박스 운영 때 불편했던 증권사 간 결제 제한도 해소된다. 예약결제원 연계를 통해 투자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쓰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져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분야 역시 변화가 크다. 카사(부동산 기반)나 뮤직카우(저작권 기반) 등은 지금까지 자체 발행 증권만 중개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단일 거래소에서 유통된다. 투자자는

플랫폼 하나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투자할 수 있어 선택지가 크게 넓어진다.

샌드박스 사업자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지분 70%를 인수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이 우선 심사 대상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이미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신청·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환금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자산 유통화를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식 유통시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 투자에서 나타나는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증시 활성화 맞춰 상반기 31.7조 공급”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간담회 김정각 사장 “외화주식 담보로 취급 증권사의 보유증권 활용 제고 지원”

“한국증권금융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태동하던 시기인 1955년에 설립돼 지난 70년간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6일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증권금융의 지난 7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3대 경영전략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 ▲자본시장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이다.

김 사장은 “올해는 증시 활성화와 증권업계 대형화 등에 맞춰 상반기 기준 약 31조 7000억원을 금융투자업계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투자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기존에는 담보 활용이 불가능했던 외화주식을 담보로 취급하는 등 증권사의 보유 증권 활용도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1956년 3월 당시 약 700만 원 규모로 시작한 증권사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상반기 평균 약 31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시킬 정도로 성장했다.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 결과, 올해 자기자본 4조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2022년 21.43%에서 지난해 23.85%까지 오르는 등 자본 건전성도 개선됐다.

앞서 증권금융은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중부센터’를 수원 광교에 개소했으며,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6일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CEO)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2026년을 1분기를 목표로 기존 홍콩사무소의 홍콩법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NH·한투·KB·신한·삼성증권 등 6개사다.

더불어 증권금융은 자본시장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위기 시 증권금융 자체재원 등으로 3조원 이상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화 투자자에게 외화 재원을 활용해 외화 유동성 공급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화 관련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화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환관련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외화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상대방 확대, 외화채권 운용 등 운용수단 다변화 및 외화채권 발행과 같은 외화 조달 경로 확충 등 외화 관련 업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증권금융회사 간 다자간 협력을 약속하는 ‘증권금융 협약식’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총 5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배구조 개선… 삼성생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만원→18만7000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등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다.

16일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우수한 펀더멘털과 더불어 회계처리 변경 및 지배구조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생

명의 13회차 유지율 89.7%, 25회차 유지율 68.9%, 초회 유지율은 커버리지 생명보험사 중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적극적인 종신보험 비중 축소와 질병보험 비중 확대, 고수익성 상품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확대를 통한 펀더멘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해지율 가중, 물량 차이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 조정 비중이 높지만, 생보 특성상 해지율 변동의 민감도도 높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CSM 성장률은 6.3% 수준으로, 생명·손해

보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이는 건강·상해 중심의 안정적 성장의 결과 확인”이라며 “CMS 조정은 종신보험에서 건강·상해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연내 밸류업 공시 기대감이 유효하고, 삼성화재의 지분 2.2%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주당 순이익(EPS) 상향을 근거로 주당배당금(DPS)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6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